

 **수의사 가축질병 예찰·방역업무 선도역할 다짐**

+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 소식**

**‘인증평가원’ 설립·임상교육 체계화
수의사처방제 도입 등 역량집중기로
유공자 시상...구제역 신고자 표창도**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지난달 25일 분당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결과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구제역 박멸결의 대회를 개최해 악성전염병 예찰·방역업무에서 수의사 역할을 되새기고, 구제역 재발방지에 수의사들이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올해 핵심사업으로 수의사처방제 도입, 수의학교육인증평가원 설립, 수의임상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을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기로 했다. 또한 수의사의 날, 해외 수의봉사 활동, 자료 DB 구축, 임상회원 고충처리 사례 홍보 등 신규사업을 내걸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최우수 지부상, 수의사 대상, 우수회원, 수의사국가시험 수석합격자 등 유공자 시상이 이어졌다. 특히 길광철 포천동물병원 원장에게는 최초 구제역 신고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영채 수의사회장은 “이번 구제역만 보더라도 수의사에 의해 최초 신고됐고, 이와 더불어 구제역 확산방지에 수의사들이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안을 돌파하려면, 수의사들의 단합과 협력이 요구된다.국민 먹을거리, 안전식품 제공, 공중 보건 지킴이로서 수의사와 수의사회가 쑥쑥 커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3월 2일



“친환경 기반 위에 축산 미래 있다”

✦ 수의정책포럼서 하영제 차관 “경종 연계 자연순환형 축산 활성화” 강조

박용호 신임 상임대표는 현장 건의사항이 포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열고 박용호 상임대표 선출도

“소비자들은 현명하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을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 30차 한국수의정책포럼’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축산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일궈가려면 무엇보다 친환경 축산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경종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에 축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하 차관은 이날 “국민을 이롭게 하면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농식품부 정책 비전”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 생산성 향상·생산비 절감,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유통구조 개선, 농가조직화, 축산업 외연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축산업의 경우 부적절한 가축분뇨라든가 온실가스 발생 등에 따라 환경오염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러한 오명을 벗고 친환경 축산을 실현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국산 축산물이 사랑받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 축산분야 탄소발생 감소, 유기·무항상제 축산물 생산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는 공동자원화사업 신청자격 완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퇴액비 수요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하 차관은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패턴이 이미 안전성과 품질로 전환됐다. 세계적으로는 해양배출 중단, 온실가스 감축, 동물복지 등이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했다”며 “친환경 축산은 농가 스스로에게 부를 안겨주는 수단인 만큼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축산경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수의정책포럼은 2010년 정기총회를 열고, 박용호 대한수의학회 이사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간이다. 박용호 신임 상임대표는 수의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3월 8일